

강희업 대광위원장 ‘2층 전기버스 차질 없이 도입하여 출퇴근 불편 해소’

- 28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 찾아 2층 전기버스 생산 독려-

-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(이하 대광위) 위원장은 11월 28일(화) 오후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하여 '24년 2층 전기버스 생산 계획을 점검하고 조기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.
-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는 친환경 자동차, 자율주행 기술 등 운송 분야 신기술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연구소로, 국가 R&D('19) 사업을 통해 국산 2층 전기버스를 개발했다.
- 이곳에서 개발된 2층 전기버스는 '20년부터 대광위에서 광역버스 노선에 투입하는 등 보급을 지원하고 있다.
- 강 위원장은 우선 내년도 2층 전기버스 생산 계획 및 이와 연계한 전기버스 충전 인프라 확충 전략을 점검하고 “올해는 대광위에서 국산 2층 전기버스를 누적 100대 도입한 해”라면서,
- “교통 혼잡에 영향을 끼치지 않으면서, 승객을 한 번에 많이 수송할 수 있는 2층 전기버스를 내년에도 차질 없이 보급하여 국민의 출퇴근길이 조금이나마 편안해지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”을 당부했다.
- 마지막으로, 강 위원장은 연구시설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“입석대책으로 상당량의 증차가 이뤄졌고, 2층 전기버스도 상당수 보급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께서 출퇴근 불편을 겪고 계신다”며,
- “국민께 더욱 편안하고, 안전한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”라고 거듭 강조했다.

2023. 11. 28.

국토교통부 대변인